

“완도 100년 먹거리” 해조류박람회 성공에 역량 집중

민선 6기 후반기 새 설계 신 우철 완도군수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목표로 수산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이 동반성장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12일 “초심을 잃지 않고 민선 6기 2년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남은 2년도 완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 군수는 “취임하자마자 전복산업이 위기를 맞아 전문가, 어민들과 함께 밤을 새가며 해결책을 찾는 등 당면한 문제를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소통의 화합행정,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복지사회, 고품격 문화관광, 깨끗한 청정환경 등 5대 국정방침을 바탕으로 나눔사회, 참여행정, 가치경영, 미래경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완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며 완도의 미래 100년의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고 자평했다.

신 군수는 민선 6기 후반기 역점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한 ‘2017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꼽았다.

신지면에 해양테마파크 조성

황금바다 프로젝트 수산소득 증대

완도공동체 등 9대 과제 추진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계 최초 해조류를 소재로 미래 식량과 에너지 자원으로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내년 4월14일부터 5월7일까지 24일간 완도 엑스포벨트 일원에서 열린다.

신 군수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대비하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연간 500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신지면에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고 SEA FOOD관을 주말 장터로 확대해 문화공연과 먹거리가 함께하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또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복명가 조성사업’을 마무리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놴다.

신 군수는 특히 “민선 6기 하반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따뜻한 완도공동체 형성, 황금



바다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 브랜드 개발, 기부문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품격높은 차별화된 문화·관광 자원 확

주요 역점사업은

- 황금바다 프로젝트 추진
- 농수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 브랜드 개발
- 기부문화 확산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품격높은 차별화된 문화·관광 자원 확충

충,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사업 추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대비 등에 힘쓰겠다”며 중점 추진 9대 역점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민선 6기 전반기 성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첫 번째 성과로 따뜻한 완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등군수실 운영과 소통화합위원회 등의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한 점,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 추진을 추진한 점 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두 번째 성과로는 수산소득 1조원 시대를 향한 황금바다 프로젝트 활성화를 거론했다.

신 군수는 이와 함께 당목항국가어항 개발사업비 500억원, 금당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비 34억원,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사업비 30억원, 경제계보육지원사업비 15억원 등 1413억원에 이르는

국가 공모사업비 확보도 주요 성과로 내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단설립과 해외시장 개척도 빼놓을 수 없는 전반기 성과 중 하나다.

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해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건설의 초석을 다졌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해외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MOU 체결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주력해 왔다.

신 군수는 특히 미국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가 하면 국제상품소를 비롯한 전시회 등에 참가하고 다수의 강의를 통해 완도산 농수산물들을 해외시장에 알리는 청병 역할도 해냈다.

신 군수의 활약으로 완도군은 해조류 컵국수와 다시마말, 전복미역국, 켈프칩 등 상품 19종을 미국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한·중보세교역센터에 완도군 판매센터를 개장해 전복통조림과 김, 해조국수, 전복장조림도 인기리에 판매중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은 2015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상, 2015년도 전남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2016대한민국청중 경제대상 등 외부에서 44개의 상을 휩쓸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



해남 어촌체험장 속속 개장 인기몰이

대죽리 조개잡이 체험 관광객 수백명 몰려

평결 해남 여름바다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어촌 체험장들이 속속 개장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장한 대죽리 조개잡이 체험장은 개장 첫날부터 300여명의 체험객들이 몰리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사진>

평결마을 가는 길에 있는 대죽리 체험장은 썰물때면 마을앞 대죽리 하구 2차레 바다가 갈라져 드러난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채취할 수 있다.

마을 어촌계에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

으며, 어린이 3000원, 중학생 이상 5000원의 체험비를 받고 있다. 호미와 정화, 소쿠리 등은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송평해수욕장이 인접한 화산면 구성리 바지락 체험장은 올해 80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또 송지면 사구어촌체험마을과 북평면 오산어촌체험마을, 황산면 산소어촌체험마을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마기체험, 조개게기 체험, 갯벌체험 등 마을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어촌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 저소득층 아동 한글교구 지원

진도군이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아동들에게 즐거운 놀이를 통해 기초학습을 다지기 위한 놀이식 한글 교구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7개 읍·면 41가구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성장 할 수 있도록 놀이식 교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구 지원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용 방법 설명과 함께 아동들의 상담도 동시에 이뤄져 만족

감이 높다는 게 진도군의 설명이다. 놀이식 교구는 아이들이 느끼는 지루함을 최소화 하고 흥미 있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쉽게 기초 한글과 친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언어소통이 쉽지않은 다문화 가정의 경우 엄마가 아이들에게 한글 학습지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면서 한글을 접할 수 있는 놀이교구의 교육효과가 높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군 공무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른김 생산자 연합회장 이·취임식

(사)한국마른김 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완도관광호텔에서 7·8대 회장 이·취임식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취임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박종연 의장, 박인철 의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이인근 원장을 비롯한 완도군 관내 기관단체장과 인근 해남, 고흥, 진도군수협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임하는 정경섭 회장은 “지난 5년간 많은 협력을 해 주신 350여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최봉학 회장은 “모든 회원과 힘을 모아 김 산업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국 마른김 생산자연합회 전국 회의는 350명으로, 올해에만 1억3000속의 마른김을 생산해 3200만속을 미국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소비시장 다변화에 대비해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는 물론 마른김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가공제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군 ‘인구의 날’ 대통령 기관표창

해남군이 11일 제5회 인구의 날을 맞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해남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으로 국가 인구정책을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출산정책팀을 구성,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시행함으로써 최근 3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 지역인

문과 연계한 출산 축하광고, 임신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생아 무료이름 지어주기 등 시책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전남 1호 공공산후원 운영, 분만 산부인과 공모사업 선정 등 출산장려 기반 구축도 큰 성과를 거두며 전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도 해남군은 태교음악 CD제작 보급,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위한 사회단체 MOU 체결, 임신부 초청 토론회, 출산친화 캐릭터 개발 등 출산 시책을 적극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물들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매매 - 1억 6천만원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계획관리지역, 위치 좋음 36세대중 20세대 거주 매매 - 83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무인텔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콘도겸용)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장기투자 최적!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5억 정도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